청년이 갈 곳 없는 빛고을… 암울한 고용시장

광주·전남 3분기 취업자 증가 대부분이 5060…40대 1만2300명 줄어
30대는 13분기 연속 감소…금리 상승·내수 부진에 4분기도 하락 전망

올해 3분기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3000명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나왔고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전일제 근무자 수는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용의 질마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취업자 수는 광주 75만4000명·전남 102만1000명 등 17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3200명·1만9900명 증가했다.

3분기 지역 취업자가 2만3100명이나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다수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 전년보다 취업자가 늘어난 연령대는 60세 이상(2만8800명)과 50대(7700명), 15~19세(6400명)뿐이다.

40대 취업자는 광주 8500명·전남 3800명 등 무려 1만2300명이 줄었고, 30대(-1700명), 20대(-2700명) 등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 30대 취업자 감소세(전년 동분기비)는 2019년 3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지속하고 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의 경우 광주는 전분기보다 떨어지면서 4분기 연속 7대 특·광역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올 3분기 청년 고용률은 광주 38.5%·전남 39.9%로, 전국 평균(47.2%)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광주 6.3%·전남 6.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6.1%)을 웃돌았다.

광주·전남지역은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일자리도 불안정해졌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통상 전일제 근무자로 간주하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올 3분기 11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만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0만5300명 늘어난 6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3분기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취업자 통계를 낸 1989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대로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2011년 3분기(106만1000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산업별로 보면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고용 타격은 3분기 연속 지속하고 있다.

3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광주 6700명·전남 1만1300명 등 1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는 올해 들어 3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3분기 취업자 증감분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1만1000명 줄며 타격이 컸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1만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5200명) 등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전남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가장 컸고,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가 전년보다 1400명 줄었다.

연말에도 고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올해 4분기 고용은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증가세 둔화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기간 떨어졌던 고용률의 기저 영향으로 4분기 고용률은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카카오·네이버 악재에 속타는 개미

데이터센터 화재에 장시간 먹통…기업 신뢰도 하락
금융서비스 이용자 불안…메신저 갈아타기도 증가

플랫폼 투자자들에게 '검은 월요일'이 되는 걸까.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은 17일 월요일 증시 개장을 앞두고 주말 내내 노심초사했다.

이미 연초 대비 반 토막 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카카오톡과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에서 발생한 장시간 서비스 장애로 또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 주가는 최근 들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해 카카오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해 54.3% 하락했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70% 넘게 추락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 회사는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 14일 간신히 주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 탓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업 신뢰에 타격이 예상된다.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특히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용자들이 벌써 늘고 있어 4000만명이 넘는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계획해온 새로운 수익 모델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카카오는 올해 4분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광고를 도입해 수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은 "불안해서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에는 집중하면서 '서버 쪼개기 분산'에는 실패해 장시간 서비스 장애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긴 했다. 그러나 쇼핑라이브 같은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빚었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대표주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말 사이 '미국발 비보'도 들려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일(현지시간) 전장보다 3% 넘게 급락했다.

그간 같은 기술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들 회사에 투자한 '개미'들에게는 17일 국내 증시가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산 시설이 자리한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발생해 당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난민 후원금 1천만원 광주은행 송종욱(오른쪽) 은행장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을 찾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난민 정착과 의료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여성 벤처기업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최근 나주씨티호텔에서 '여성벤처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천년 나주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위지연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장은 "앞으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와 나주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미소금융' 이용 활발

담보·보증 없는 저리 대출…전국 평균 대출액보다 60만원 많아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에 대한 광주·전남 평균 대출액은 1100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미소금융 지역법인 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광주 북구 법인 대출 건수는 346건으로, 모두 38억33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으로, 전국 27개 법인 평균 대출액(1040만원)보다 60만원 많았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자금 지원으로 구성됐다.

원래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신이었던 미소금융재단이 시행했지만,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설립한 지역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은 전국에 27곳이 있다.

광주 북구 법인에 지급된 운영비는 7700만원(2018년)→7500만원(2019년)→6300만원(2020년) 등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6900만원으로 반등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 북구 법인의 누적 차입금(대출채권)은 200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소상공인 취업유발 효과 전국 상위권

소진공 2019 데이터…광주 42만3천명·전남 44만5천명

광주 소상공인들이 내는 취업유발 효과의 지역 내 비중은 82%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부산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모형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취업유발 효과의 지역 내 비중은 광주 82%·전남 8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율은 80%로, 광주는 대구·부산과 함께 8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소진공은 2019년 산업연관표의 각종 유발계수 및 소상공인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 통합적 역할을 분석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취업유발 효과는 광주 42만3000명·전남 4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 효과는 광주 36조9990억원·전남 42조5250억원으로, 지역 내 효과 비중은 광주 67%·전남 7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중은 70%로, 광주는 이를 밑돌았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광주 16조8590억원·전남 18조3250억원으로 분석됐는데, 지역 내 효과를 내는 비중은 광주 72%·전남 71%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전국 평균 비중(73%)을 밑돌았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경제생태계 육성 차원의 정책수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3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4	15	22	27	33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08,576,825	15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4,762,078	78
3	5개 숫자일치	1,574,435	2,713
4	4개 숫자일치	50,000	137,021
5	3개 숫자일치	5,000	2,279,500

개정된 법인결산 회계·세무처리 특강

광주상의, 20일 대회의실…김우택 회계사 초청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체크 업(UP)! 법인결산 회계·세무처리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반적인 법인의 결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바뀌는 법인결산 및 회계·세무 처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올해 개정된 세법을 완벽하게 반영해 중점사항을 놓치지 않고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은 ▲2022년 주요 개정사항 ▲중소기업 판단 기준과 회계 결산 ▲주요 계정별 법인결산과 회계·세무 ▲재무제표 관리 사례 등 법인 결산에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 약 7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는 SBS CNBC의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절세미남 절세미녀'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진성 회계법인 소속 김우택 회계사다.

김 회계사가 직접 법인결산의 이론부터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결산 업무를 생전 처음 진행하는 실무자나 근무 기간이 짧아 노하우가 부족한 직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 결산 강의가 세무조정 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초보자들이 결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전반적인 결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실무 초보자들도 결산과 조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